

영적 비상사태(靈的 非常事態)

세상은 반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절대 기준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일례로 동성애 허용을 보면 인권이나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기 소견 좋을 대로 살 뿐입니다.

세상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위협이나 개성공단 폐쇄 같은 극한 대립이 이어집니다.

여기저기서 살상과 자살과 파괴가 일상화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암울한 시대의 적합한 지도자라고 나서는 자들은 많으나

그들과 희망의 날개를 펴기에는 현실 앞에 절망의 나락이 더 깊어 보입니다.

세상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삼포(三拋) 시대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하는 대로 먹고 산 것은 옛일입니다.

“아메리카 드림”은 커녕 생존의 위협 앞에 떨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아메리카 드림”길을 찾기보다

직장생활 나아가 이민생활 자체를 포기하려는 고민도 작지 않습니다.

반항과 절망과 포기는 마귀의 영입니다.

마귀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분탕(焚蕩)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포기시키지만 자기의 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영적 비상사태입니다.

마귀의 궤계를 섬멸시킬 강력한 무기를 꺼낼 때입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위대한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가장 위대한 행동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했던 무기인데
놀랍게도 기도는 그 시대마다 가장 강력한 신병기(新兵器)였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을 쑥대밭 만들고 있는 “반항과 절망과 포기”는 마귀와 함께 꺼일 것입니다.

기도의 함성이 곧 승리의 외침이기에,

사순절 온 교회에 영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도의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행복

월간 **아가페** 제385호·2016년 3월호

발행 |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 886-4040, 4347 Fax : 718) 358-7789
www.kapcq.org

 아주 창의
예수교 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따스한 성령님, 이곳에!
교회설립 42주년 기념예배 및 은퇴식 임직식
송동률·정길표|임직장로 인터뷰
2016년 단기선교 오리엔테이션
전폭훈련 어린이 전폭 훈련/ 수료생 재훈련
XEE 전폭훈련 QPEM



담임 김성국 목사

Rev. Seoung Kook Kim
金星局牧师

성(聖)과 성(誠)의 사람을 기다리며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일이 곧 다가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뽑아야할지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적합한 지도자라고 외치는 자는 많지만, 모두를 감동시킬만한 영웅은 없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도 대통령 후부 중에 확실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성숙한 지도자는 누굴까 찾아보지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인물의 부재 속에 인물을 뽑는 일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져야 합니다.

이 땅의 곳곳에서 기독교적 관점으로 활동할 지도자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어디에서나 영향력을 끼칠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크리스천 지도자가 없는 영역은 암울, 그 자체입니다.

변화된 크리스천 지도자들로 세상을 바꾸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방법이십니다.

저는 세상을 바꿀 크리스천 지도자들의 기준을 성(聖)과 성(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거룩함과 성실함은 신적(神的) 힘이요 아름다움입니다.

성(聖)과 성(誠)의 사람을 이길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사람의 숫자도 늘어나고 사람의 평균수명도 늘어나지만 사람의 질(質)은 퇴보하는 시대에 거룩하고도 성실한 사람이 기다려집니다.

그런 사람을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길 분투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키워가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 가운데 성(聖)과 성(誠)에 대한 집중 교육, 반복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교사라 할 수 있는 부모와 교역자, 교회학교 교사들의 타협 없는 역할이 요청됩니다.

대통령 후보 가운데 기독교의 토양에서 자란 성(聖)과 성(誠)의 사람이 있었다면

이번 선거가 얼마나 기대되었겠습니까?

충성된 사자들이 되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 잠언 25:13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2016년 은퇴장로 및 장로·안수집사·권사 임직자

은퇴장로



권사



명예권사

장로



집사



여주 창성
예수교장로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等待一位有圣洁 和勤奋品格的人

It is almost time for the election of the new president of United States, and people are worrying whom, and under what standard they are going to vote the president for. All of the candidates are advertising how much they are qualified for the job, but no matter how much they show their ability and credibility, none of them seem attractive at all. And, especially we as Christians, trying to find out if there is any candidate with the solid Christian foundation, but could find none. It is most likely that we would end up choosing the president out of a lack of qualified candidates.

This world needs Christian leaders who lead people with Christian perspective. We, Christians of this present day, therefore, must focus on cultivating Christian leaders of next generation in different fields. Christian leaders must be present in various fields so that it will light up the darkness of this world - It is God's calling.

I believe that there are two important qualities of Christian leaders - 'holiness,' and 'diligence.' Holiness and diligence are the characteristic of God that has divine power and beauty in them. There is no one in this world who can go against a person with such qualities, nor defeat them.

In this world where the morality of people are degenerating while overall life expectancy is increasing, we look forward to seeing a Christian leader with holiness and diligence. However, for this to happen in reality, Pastors and Parents as Christian teachers, must work hard to make ourselves as such, and teach our children with steadiness and concentration.

How much would we be excited, if there was a Christian candidate with holiness and diligence?

Waiting for a person with holiness and diligence

快到了选新的美国总统的时候了，人们在担心要以什么样的标准来选谁做总统。所有的竞选人都在宣传着自己是多么的能胜任这份工作，但无论他们如何的展现自己的能力和可靠性，他们看起来却一点吸引力都没有。特别是身为基督徒的我们，在尝试找找有没有一位是具有坚固基督徒背景时，竟一个也找不到。到最后，我们极可能就选一位不怎么符合条件的候选人做总统。

这个世界需要一位基督徒领袖以基督教的观点来带领人民。所以，身为基督徒的我们必须专注于培养出下一代的基督徒领袖在不同的领域里。基督徒领袖必须存在于各个领域里，这样就能照亮这世界的黑暗---这是上帝的呼召。

我认为基督徒领袖必须具备两个很重要的品格---“圣洁”和“勤奋”。圣洁和勤奋是神性里所拥有的神聖能力与美丽。这世上没有一个人能与拥有这样品格的人为敌，又或者是打败他。

在这个人类道德堕落，而人生的期望又在上升的世界里，我们期盼着看到一位具备圣洁和勤奋的基督徒领袖的出现。然而，要让这成为事实，牧师和家长们要必须努力的让自己成为主内的教师般，持续不断和专注的教育自己的孩子们。

如果有一位具有圣洁和勤奋的基督徒竞选人，我们该有多兴奋啊！



장영준 원로목사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예들,
거친 광야에서 가시와 엉겅퀴에 찢기며
상처난 그들의 몸을 쉴 곳이 없어 유리 방황하였다.
광야 인생길에서 목말라 하갈의 모자처럼 통곡하며
배고파 한 덩이의 뺨을 찾다 쓰러지는 나그네 인생들을
보다 못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때가 되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셨다.

하늘 아버지의 보좌에서 죽음의 땅에 있는
방황하는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
마침내 갈보리 언덕 위에서 누적된 인생의
흉한 죄짐을 지시고
자신의 몸을 찢고 속죄의 제물이 되시었다.
죄로 인하여 진노하셨던 하나님은
활짝 웃으며 범죄한 탕자 인생들을
사랑의 두 팔 벌려 덥석 안으셨다.

주님이 흘리신 핏자국 위에 세워진 지상의 교회는
땅에 있는 시은소, 갈한 인생들의 생명의 우물,
허기진 인생들이 찾아오는 떡집,
병든 자들이 고침 받는 베데스다,
외로운 나그네들에게 열려 있는 사랑의 보금자리,
여기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구주 예수님을 사귀고
위로의 성령님과 동행하며,
천국 본향을 함께 가는 벗들을 반긴다.

교회 설립 42주년에 부쳐

For the 42nd Anniversary of Our Church

낯선 미국 땅

아무도 반겨 주는 이 없는 거친 이국에서
두고 온 고국을 그리워 눈물짓는 이민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쏟아
말씀의 제단을 세워 주셨다.
기도의 제단을 쌓아 주셨다.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성령의 우물을 파 주셨다.

42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이 제단에 나아와 갈한 심령을 적시고,
생명의 떡을 먹고
죽음의 병에서 치료 받고
절망의 길에서 소망을 찾고,
지옥으로 가던 길을 벗어나
천국행 인생으로 바뀌었다.

교회 설립 42주년을 맞으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 땀 흘리며 기도로 섬기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몸, 마음, 물질, 시간 바쳐 밀거름 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 설립 42주년을 맞으며
전 미국을 향하고,
세계를 향하여 뻗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와 자녀들의 영원한 기업인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선포되게 하소서.

Walk with the Spirit of comfort

And delight to see their friends who are also heading
heavenward.

For the immigrants yearning and weeping for the native land
they left behind
For the strange land of America
A foreign place where no one is happy to see them
The Lord has torn His own body and shed His blood
To build the altar of God's Word
To build the altar of prayer
To prepare a love nest and
To dig the well of the Spirit.

For the past 42 years we have
Come before this altar and refreshed our dry souls,

Fed on the bread of Life
Been healed of deadly illnesses
Found hope on the road to despair
Crossed over from a road headed to hell to the life
headed towards heaven.

As we greet the 42nd year of our church
Thank you Father God, Thank you loving Jesus.
Thank you all who have served the church through your
tears, sweat, and prayers.

To all who have sacrificed themselves and their bodies,
hearts, possessions, and time
For the Church, may the Lord's blessing be upon you.
May we all become blessed people of God who love, boast of,
and are thankful for this church.

As we greet the 42nd year of our church
May our church branch out to all of America, and to the rest
of the world.
Through this church, which the eternal inheritance of our
children and ourselves
May the kingdom of God expand.
And may the glory of God be proclaimed upon the whole
earth.

2월 14일

구하라

누가복음 11:5-13

오라

요한계시록 22:17-21

2월 7일

성령님이 초청하신다.

목마른자, 듣는자, 원하는 자를 성령님이 초청하신 목적
이 있다.

1. 목마른 자를 도와주시기 위해 부르셨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누구에 의해 다루어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하나님이 다루시면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성령(롬 8:26)에 의해 은혜의 수단으로 쓰인다(고후 12:9)

2. 듣는 자가 더 잘 들도록 부르신다

성경은 성령이 저자이므로 소망과 생명이 되고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면 문제 해결을 얻을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준다(요 14:26).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에 가감이 있는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거짓 교사가 되어선 안된다(:18-19).

3. 원하는 자가 바른 것을 원하도록 부르신다

세상의 원함에는 만족함이 없고 끝없는 추구에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된다.

진리의 성령이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삶으로 이끈다(요 15:26). 성령님은 영의 눈을 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겸손한 분이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의 일관된 종말론적 시각으로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참된 소원을 갖는 성령 받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

기도는 구하라고 주어진 명령의 선물이다.

무엇을 구할 것인가?

1. 구체적인 필요를 구하라(빌 4:6)
2. 성령을 구하라 (눅 11:13)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것과 성령충만이 구할 기도제목이다.

어떻게 구할 것인가?

1. 간청함으로 구하라

17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우리 모두는 거지’라고 마지막에 표현한 것과 같이 거지의 간청함과 같이 구해야 한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간청의 기도는 없다.

2. 반복해서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듯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 요구하여야 한다. 불의한 재판장을 찾은 과부의 기도나 이방의 수로보니게 여인도 계속 구함에 응답받았다.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기도를 좋아하시며 기다리신다(계 5:8b). 그리고 응답하신다.

1. 필요에 따라서 응답하신다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신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시다(마 21:22).

2.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구하는 자마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마 7:11).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 수준은 달라 ‘좋은 것’이 내가 구한 것과 다를 수 있다. 나의 약함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으로 더욱 기뻐하신다(고후 12:8-9). 응답이 되었으나 당장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다(눅 19:41-42).

필요를 구체적으로 간절히 구하자.

성령을 구하라. 구하는 대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성령 만나면 환경보다 내 자신의 인격이 먼저 달라지고 담대해지며 주위의 많은 영혼을 성령님의 성품대로 따스하게 볼 수 있다.

교회와 나는 하나이다. 성도가 꼭 할 일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 되게 하심을 지킬 수 있는가?

1. 알아야 한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이다. 본질도 하나이고 출발도 하나님으로부터 된 주님도, 믿음도, 소망도, 세례도 하나 됨을 알고 분열과 반목함으로부터 굳게 지켜야 한다.

2. 죽여야 한다

외적인 하나님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자신의 자아와 옛 성품을 죽이고 섞이어 소리 없이 서로를 향한 겹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함으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해내야 한다. (비닐봉지 안의 으깨진 포도를 기억하시죠)

3. 같아야 한다

부르심에 대한 한 방향의 목표로 소망을 갖고 행함이 같아야 한다.

자아는 죽이고 재능과 개성과 은사는 살려서 함께 하나님의 목적으로 끝까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예: 신이 내린 최고의 45명의 가수-각각 자신의 개성을 살려 아름다운 화음으로 합창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같은 목표를 외친다).

엡 4: 12-14의 에베소교회에 나타난 교회의 부르심은 봉사 (services)와 성장과 전투하는 것입니다.

지키라

에베소서 4:1-6

2월 21일

세상에 좋다고 하는 소식은 결국 실망을 주나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 Good News는

*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 예수님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 예수님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구원을 얻는다.

*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신다.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굿 뉴스이다.

교회는 이 복음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1. 교회는 복음을 들어야 한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하였다(롬 1:15)

42주년의 우리교회는 복음에 대해 의숙하여 자만할 수 있다. 언제나 복음을 사모하여야 한다.

2.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교회는 복음을 자랑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있는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전해야 한다. 한국의 본질적인 선진화의 원동력은 선교사들이 자기생명보다 더 사랑하며 뿌려진 복음 때문인 것이다.

무엇을 위한 교회인가?

2월 28일

로마서 1:13-17

3. 교회는 복음을 살아야 한다

교회는 복음대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롬 1:17).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교회는 복음이 세워졌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며 복음대로 살아야 한다.

교회 설립 42주년과 은퇴식 임직식을 맞이하여 복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3/13(주) 새가족 졸업예배(112기)/ 일광 절약 시작	4/1(주) 월례회 or 성경암송대회
3/15(화) 성인대학 개강 / 제52기 전도폭발 개강	4/6(수) 지도원 성경공부
3/19(토) 학습, 유아, 입교, 세례 문답식 러시아권 전도집회	4/8(금) 구역예배
3/20(주) 종려 주일/ 성례예배	4/10(주) 선교회 헌신예배/교사대학 시작
3/25(금)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밤	4/17(주) 선교회 헌신예배
3/27(주) 부활주일/ 촛불예배/ 부활절 찬양예배	4/24(주) 선교회 헌신예배
3/28~30일 여선교회 수련회	4/25~27일 어머니 학교
3/30(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4/27(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월간 아가페 제385호 목차



- 2 신앙시론-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 김성국 목사
- 4 원로목사님 칼럼 – 교회 설립 42주년에 부 | 장영춘 목사
- 6 주일 설교 요약
- 8 3월 행사 및 목차
- 9 구정 퍼레이드 | 천유지 전도사
- 12 따스한 성령님, 이곳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스케치 | 문인숙 권사
- 16 2016년 장학금 수여식 | 박정봉 집사 / 김현지 학생
- 18 교회 설립 42주년 기념 음악회 | 채현주 권사
- 19 은혜가 넘치는 심방 | 이양미 전도사(2교구 교구장)
- 20 교회 설립 42주년 기념 예배 화보
- 22 은퇴 장로님의 글 | 윤영철 장로/ 장봉석 장로
- 24 임직 장로님 인터뷰 | 정길표 장로/ 송동율 장로
- 26 QPEM의 새로운 사역자 | 진기웅 전도사
- 28 초등부 수련회 | Jessica Lavere
- 30 제1회 어린이 전도폭발 – Hope for Kids | 황지현 집사
- 31 제1회 어린이 전도폭발 – 51:1 | 강지영 전도사
- 32 제1회 어린이 전도폭발 | 郑丽芳
- 33 전도폭발 재훈련이 시작된다
- 34 변화된 선교회- 선교회 회장단
- 36 변화된 선교회- 요한 뵈뵈의 밤 | 이승재 집사
- 37 연중행사표
- 38 2월 등록 새가족 안내



耶穌愛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천유지 전도사

春节乃是中国人传统节日的代表，是一年中最被重视的节期。中国人最看重家庭和亲情，因此最看重春节，因为春节是亲人的节日，是家庭的节日。中国人有句老话说：“大年三十吃饺子，没有外人”，意思是说一年在外忙碌打工的人，四处漂流的人，每逢过春节时一般都要回家，合家团聚，能围在一起过年的，都是亲人。父子两代，祖孙三代，甚至四世同堂，举个杯，鞠个躬，父慈子孝，母良妻贤，人们在鞭炮声中，在锣鼓声中，在欢笑声中，享受着人间温暖。骨肉情，阖家欢，这种思想深入我们中华民族的骨髓，备受推崇，这也是我们华夏民族千百年来描绘的最美的图画。

在美国过春节，虽然不像在中国那么有气氛，但是纽约的华裔同胞还是尽可能的与社区的人们共享春节的喜庆与文化。因此，在纽约每逢过春节，曼哈顿和法拉盛的唐人街都会有游行。届时，马路两边都会聚集很多的华人和其他族裔的人一同观赏。今年我们教会有幸参加法拉盛的春节游行，乃是神的恩典。让我们有机会借此良机向社区的人士宣扬耶稣基督的名，并让他们认识我们教会，也有机会来参加聚会。

我们教会的首次春节游行，乃是三堂的同工与弟兄姐妹在主任牧师的带领下

预로부터 중국에서는 음력설을 일년 중 제일 중요하고 대표적인 명절로 꼽아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가족을 매우 중요시 하는 관계로 따라서 모든 일가친척들이 함께 모이는 음력설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력설 전날 저녁에 만두를 먹는 음식상에 손님은 없다” 그 뜻인즉 일 년 동안 밖에서 땀 흘려 일을 하고 객지에 머무는 사람들도 음력설 때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상봉하며 한 음식상에 둘러앉아 음력설을 맞이해야 하므로 같이 음력설 전야를 보내는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자지간이나 가족 삼대나 심지에 사대가 함께 모여 앉아 먹고 마시며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고 아버지의 자상함과 아들의 효도가 나타나고 어머니의 선함과 아내의 현명함이 돋보이는 이 명절은 그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 최대의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 친지 간의 사랑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이 신념이 중화민족의 몇 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하나의 미덕으로 이어져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내는 음력설은 중국에서 보냈던 것처럼 그 명절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지 않지만 뉴욕에 살고 있는 중국 동포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최대한 이명절의 기쁨과 문화를 살리기에 애써왔습니다. 매년 음력설에는 맨해튼과 플러싱 지역의 차이나타운에는 항상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매번 양쪽 도보거리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구경하는 사람들로 꽉 찼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교회도 이 음력설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로 구역사람들에게 예수님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고 우리교회를 소개하며 또 그들을 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교회는 처음으로 음력설 퍼레이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부, 영어부, 중국어부의 모든 사역자들과 지체들이 담임목사님의 인솔 하에 함께 참여한 이번 퍼레이드는 정말로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一同参加。韩文堂、英文堂与中文堂，三种的语言，三个不同的横额，却是同样的信息，同样的口号，“耶稣爱你”。这特显出我们教会的多元化与合一性。我们虽都不同，不同的语言，不同的文化，不同的背景，但是在基督里，我们却是一家人。弗4:4-6“身体只有一个，圣灵只有一个，正如你们蒙召同有一个指望。一主，一信，一洗，一神，就是众人的父，超乎众人之上，贯乎众人之中，也住在众人之内。”这是我们教会合一的见证。当韩文堂、英文堂与中文堂的弟兄姐妹手牵手、心连心地走在游行中的时候，社区中的人们就看出我们是“基督徒”，属于耶稣基督的人。正如主耶稣说，“我在他们里面，你在我里面，使他们完完全全地合而为一，叫世人知道你差了我来，也知道你爱他们如同爱我一样。”约17:23 “你们若有彼此相爱的心，众人因此就认出你们是我的门徒了。”约13:35。

这次的春节游行，不单止给社区带来耶稣基督的见证，使更多人认识基督、认识教会，而有机会蒙恩得救。并且也会激励那些在街上看见我们队伍的其他教会的基督徒，激励他们也像我们一样走上街，宣告基督的名，传扬耶稣的救恩。而最宝贵的，乃是在这样的联合福音事工里，我们教会三堂的弟兄姐妹有了更多的机会一起配搭，一起同工，增进了彼此的了解，拉近了彼此的距离，使我们多元化的教会在基督里更加的合而为一，更切实的彼此相爱，荣耀基督。

感谢主，赐给我们这么美好的一次机会，让我们能站在一起，走在一起，喊出同样的口号，“耶稣爱你”。这个口号不单止是喊给路边的人听，也是喊给我身边的每一位韩文堂、英文堂和中文堂的弟兄姐妹们听。我的弟兄，我的姐妹，耶稣爱你！我也爱你！



Jesus Loves You



영어 세가지 언어와 세 개의 다른 플랜카드를 들고 있었지만 전하려는 메시지와 외치는 구호는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교회의 다문화성과 연합성을 제일 잘나타낸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지만 그리스도안에 있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앱4:4-6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분이시니 이와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는 우리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우리 세 예배부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마음을 합하여 퍼레이드에 참여해서 행진 할 때 구역의 사람들 모두가 우리는 “크리스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함이로소이다(요17:23)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13:35) 이번 퍼레이드는 우리가 예수님의 간증이 되어 지역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알 수 있게 하여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는 기회도 만들어 진 것입니다. 또 구경왔던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도전을 받아 우리와 함께 대열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알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귀했던 것은 이런 연합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한국어, 중국어, 영어 예배부가 서로 파트너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 서로를 더 알아가고 더 가까워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문화 교회가 연합하여 더욱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함께 서 있고 함께 행진하며 함께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길옆에 구경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옆에서 있는 서로를 향해 외친 것이기도 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I. 패스한 성령님, 이름과 상징

1. 잊혀진 하나님 (행19:1-7)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행 19:4)

2. 그 아름다우신 이름들(사11:1-2)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사 11:2)

3. 또 다른 보혜사 (요14:16-18)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 14:16)

4. 뜨겁고 따듯하신 성령님 (마3:11-12/요일2: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요일 2:27)

5. 평화롭고 민감하신 성령님 (요1:29-34/엡4: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엡 4:30)

6. 깨끗하고 풍성하신 성령님 (요7:37-38/딛3:5-6)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 7:37-38)



II. 패스한 성령님, 구원과 동행

7. 나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가? (요3:1-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사순절 서원 새벽예배 스케치

문인숙 권사

우리 교회 영적 뿌리가 되는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패스한 성령님 이곳에”라는 주제로 올해로 29회 째를 맞으며 2월15일부터 3월26일까지 40일간 계속됩니다. 첫날부터 520여명의 성도가 동참하므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기가 넘쳤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전날에 내린 눈이 우리를 방해했지만 수년전 기록적인 눈사태에도 주님 전으로 달려오는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역시! 우리 퀸장 성도님들의 주님 사랑은 알아줘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받을 영혼의 양식은 르하흐! 강하지만 따뜻한 바람으로, 불로, 기름부음으로 오시는 성령님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패스한 역사와 성령님을 알고 우리 곁에 모시는 한층 성숙된 성도로 발돋움 하기 위하여 김성국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한 것입니다. 이에 주중엔 매일 500-530여명, 토요일엔 680여명의 성도가 모여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은혜가 넘치는 충만한 예배로 즐거움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만나 보려합니다.

빵빵빵!!! 베이글이 왔어요~

새벽 5시10분 따끈한 베이글을 픽업한 앤수집사님이 고소한 향기를 날리며 교회에 도착합니다.

여선교회 회원들은 벌써부터 손에 칼을 누가 누가 베이글을 예쁘고 맛있게 많이 잘라 놓을까 대회가 열립니다. 두런두런 은혜 받은 얘길 나누며 자르다 보면 어느새 몇 바구니의 베이글이 소담히 담겨져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성도님들을 기다립니다.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두꺼운 파카를 입고 텔모자에 장갑을 끼고 빨간불의 신호봉을 들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뿐어져 나옵니다. 밖의 추위와 쟁쟁 불어오는 바람도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의 차량 안전을 도와 예배를 돋는다는 기쁨을 가슴 가득 채우

며 분주히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손신호를 보냅니다. 어느 새 추위는 저 멀리 도망가고 차에서 내리는 성도님들과 함께 웃음으로 파킹장부터 따스해집니다.

뛰뛰 빵빵 퀸장 버스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새벽을 달리는 멋진 사나이! 후러싱, 화잇스톤, 뉴저지에서까지 성도가 계신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서 발이 되어 줍니다. 따뜻한 이불의 유혹을 뿌리치고 추위 속에 버스를 기다리실 성도님 얼굴을 그리며 시간 맞춰 운행하려 이 골목 저 골목 달려옵니다. 버스를 내려 교회에 들어서면 먼저 와 계신 교역자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우리 주님 아버지 집의 포근함에 평안합니다.

좀 더 가까이! 앞으로 오세요. 환영합니다!

실내외 안내가 분주합니다. 간절한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친근한 미소로 기쁘게 인사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모하고 헌신된 피택 권사들이 실내 안내를 담당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경배와 찬양 팀의 찬양이 예배 전에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합니다. 찬양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주님, 마음 합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청년부와 장년부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연습하고 찬양과 경배로 봉사합니다.

방송실에서는 말씀과 찬양원고를 미리 준비하여 때에 맞추어 비춰주십니다. 스크린에 비치는 찬양 가사를 보며 맘껏 손뼉 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충성하심이 있어 우리의 사순절이 평안한 예배로 진행 됩니다.

올해도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수고에 더욱 패스하고 평안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며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오직 하나님 만 높이는 귀한 예배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축복이 넘치는 축제의 장이 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패스한 성령님, 이곳에



없느니라 (요 3:5)

8.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 (엡1:7-14)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엡 1:13)

9.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나? (고전3:16-17)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 3:16)

10.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롬8:12-17)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롬 8:15)

11. 나를 어떻게 도우시나? (롬8:26-28)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롬 8:26)

12.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나? (요14:26/딤후3:15-17)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 14:26)

III. 따스한 성령님, 공동체와 예배

13. 성령님께서 부어지신 가정을 아십니까? (행10:44-48)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 이러라(행 10:45-46)

14.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를 찾으십니까? (행11:19-30)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행 11:26)

15.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요 4:23-24)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 4:23)

16.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계2:29/행13:1-3)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2:29)

17. 성령님을 소멸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살전 5:19-22)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아



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살전 5:19-22)

18. 성령충만의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엡5:18-21)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엡 5:18)

VI. 따스한 성령님, 열매와 은사

19. 열매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가? (갈5:22-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23)

20. 은사가 없으면 직분도 없는가? (고전12:4-11)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2:4-7)

21. 고린도교회의 풍성한 것과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고전12:31-13:13)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전 12:31)

22. 우리 교회의 풍성한 것과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눅18:18-27)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눅 18:22)



23. 오늘도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있는가? (고전14:1-12)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고전 14:5)

24. 열매와 은사를 함께 가진 자의 세 가지 특징은? (시78:70-72)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시 78:72)

V. 따스한 성령님, 비전과 선교

25. 비전은 어떻게 보이는가? (행16:6-10)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계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리라 (행 16:10)

26. 비전을 어떻게 이루는가? (슥4:6-10)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슥 4:7)

27.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 나라 (마12:22-32)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 12:32)

28. 성령님은 어디로, 왜 움직이시는가? (겔 47:1-12)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떡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떡을 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겔 47:12)

29. 모든 민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가? (엡3:11-22)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엡 3:20-21)

30.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가? (행2:14-21)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행 2:17)

VI. 따스한 성령님, 예수님과 우리

31. 성령으로 탄생하심 (눅1:26-38)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눅 1:35)

32. 성령이 강림하심 (눅21-22)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눅 3:21-22)

33. 성령에게 이끌리심 (눅4:1-15)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 (눅 4:1-2)

34. 성령으로 기도하심 (눅10:21-24)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눅 10:21)

35. 성령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 (히9:8-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 9:14)

36.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롬8:10-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 8:11)



교회 설립기념 장학금 수여식

믿음의 후진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양성

퀸즈장로교회 장학위원회 박정봉 집사

퀸즈장로교회 설립 42주년을 맞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하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믿음의 후진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양성하는데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학심사 절차

- 1)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신청서를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두주에 걸쳐 접수하였습니다.
- 2) 신청서 마감후, 장학위원회들이 심사에 참여하였는데, 위원들이 개인적 친분이나 편견없이 공정한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한 명의 장학위원회가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신청서에 기

재된 실명을 가명으로 변경한 후 장학위원회들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3) 자세한심사
- 4)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 활동과 각종 시상내역 (10%)
 - 학교 성적(25%) 교회 출석과 참여도 (15%) 에세이(50%)
- 5) 심사기준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이번 에세이의 주제는 올해 우리교회 표어인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에 맞추어 1)구원 2)전도 3)다민족 선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에세이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장 전개의 설득성 (Development of position)
 - 체계성 (organization)
 - 언어 사용의 적절성 (Use of Language)
 - 문장 구조 (Sentence Structure)

2016년 장학생 명단

중, 고등부

이혜린 박은호 홍보라 신은지 최은혜 손은비 정희진 이우주 김가람 권민지

대학, 대학원부

김현지 김재민 임이슬 박재상 김현우 신예지 송수진 허남준 임정열 홍재경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

김현지 학생

안녕하세요?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저와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장학금을 통해 한번 자격 없는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저는 빙햄턴대학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5월이면 졸업 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 또 하나님의 출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다면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고 그래서 공부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장학금은 계속 될 학업에 필요한 학비에 보탬이 되어 하나님을 저를 위해 예비하신 계획을 향해 부지런히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저는 엘머스트에서 살았고 퀸즈장로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게 되었을 때 평생 처음으로 새 교회를 찾아야 했고 새로운 영적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때서야 퀸즈장로교회가 내게 가르쳐 준 참 복음과 신앙교육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감사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퀸즈장로교회는 내가 성도로서 단단한 믿음의 기반을 갖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구주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가르쳐주었고 하나님의 말씀만 꼭 불들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방학이되어 돌아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장학생으로 서서 다시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무엇보다 이 장학금을 통해 늘 내 필요를 아시고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돋는 교회에 속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김성국목사님과 교역자님들, 장로님들과 이 장학금에 도움을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한 여러 장학생들이 이 장학금을 당장의 학업을 위해서 뿐 아니라 나아가서 저희의 앞날에 있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위해 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법과 단어 사용 (Grammar and word usage)
- 6)신청자를 각그룹별(중학생/고등학생/대학, 대학원생)로 분류하여 채점을 하였고
- 7)채점 후 각 그룹 상위 40~50% 까지의 학생을 선별한후, 심사위원 전원이 다시 한번 선별된 학생들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8)위의 절차를 통해, 선발된 20명의 학생들을 장학위원장과 지도교역자 외 심사에 참여한 5명의 장학위원회들이 모여 최종적으로 의논, 합의함으로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저희 장학위원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번 장학생으로 선출된 학생들에게 먼저 축하를 드리며 이 특별한 장학금의 내역은 매주 우리교회 성도님들이 가족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아니면 다른 특별한 날이 있을 때, 가족의 외식 대신에 가족기념장학기금으로 현금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온 성도님들, 계속해서 이 귀한 일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념일에 어떤 선물을 받는 것보다 더 뜻 깊은일에 동참하며 사랑을 나눌때, 그 기쁨과 감사는 배가 될 것입니다. 작지만 하나하나 모아진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에 큰 쓰임을 받게 될것을 확신합니다.

영성 깊은 찬양 한마당

채현주 권사

뉴욕은 세계의 문화 중심지이기도 하여 많은 유명한 예술 작품과 수준 높은 음악회가 많은 곳이다.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음악은 무엇일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닐까? 2월21일(주일) 오후4시 본당에서는 교회설립 42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렸다. 중년의 나이를 훌쩍 넘은 우리 교회에 맞게 수준높고 영성 깊은 찬양이 연주되었다.

이단비 청년의 감미로운 Gabrie's oboe의 연주로 시작된 음악회는 오보에 특유의 감미로운 사운드로 마음을 열게 했다.

“오직 주의 사랑의 매여” “하나님의 은혜” 가 연주되어졌다. 곧이어 강혜영 집사님의 호소력 넘치는 목소리로 헨델의 오페라(리날도)중 여주인공의 포로된 자로 자유를 간절히 갈망하며 부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절함이 담긴곡 lascia ch'io pianga(나를 울게 하소서)와 헨델의 “내가 산을 향하여”로 오직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음을 다시금 고백하는 시간이었다. 바이올린의 섬세하면서도 흥겨운 싸운드로 하고운 청년은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곡 “사랑의기쁨”을 연주했다. 비엔나의 옛 민요를 왈츠곡으로 만든 밝고쾌활한 곡으로 기쁨을 더해 주었고, 서로를 축복하듯이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연주했다. 음악회의 피날레를 장식한 Gloria Singers가 드린 찬양은 바하의 관현악 모음곡 제3번의 2악장에 나오는 아리아, 바이올린의 가장 낮은음인(G) 선만을 이용해 연주한다고 해서



‘G선상의 아리아’라는 곡으로 유명한 곡이다. 바하가 가장 행복했을 때 만든 곡이여서일까? 음의 진행이 부드러워서 듣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곡이다. ‘알렐루야’로 가사를 붙여 멜로디를 타고 부를 때, 42년간 변함없이 우리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케 했고, 마지막곡 Darlene Zschech의 “온땅이여 주님께 외쳐라”를 올려드릴 때에는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온세상을 향해 외치며 선포해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담겨있는듯 했다.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현대음악이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 없이 우리와 함께 21세기를 살아간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귀와 영혼이 쉼을 얻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을 내년 43주년 음악회를 기대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이양미 전도사 (2교구 교구장)

마치 눈이라도 곧 내릴 것 같은 흐린 하늘을 보며 오늘은 강 건너 맨하탄 심방하는 날.

심방할 아파트는 지은 지 100년도 훨씬 넘어 보이는, 사면이 아파트 건물로 둘러 지어져 동서남북에 다 입구가 있고 중앙은 운동장처럼 빈 공간으로 되어있어 마치 중세시대의 성벽을 연상 시켰다. 입구는 튼튼한 철문에 모두 열쇠로 잠겨있어 쉽사리 출입을 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7층 아파트로 이애자 집사님 댁은 5층에 있었다. 아파트 입구부터 집사님 댁 들어갈 때까지 무려 네 번의 열쇠를 열면서 돌고 돌아 들어가야 하는데 도둑도 길을 잃을 것 같은 재미있는 아파트였다.

집안에는 만 97세(1919년 2월 24일생)되시는 친정어머니신 이시복권사님이 계셨다. 작년까지도 교회에 가끔 나오셨는데 올해 들어서는 한 번도 출석하지 못하셔서 뵈니 반가웠다.

기력이 없으신지 방에 누워계시다 벽을 붙잡고 조심스레 걸어 나오셔서 소파에 앉으셨다. 연세가 있어 다리에 힘이 없으신 것 외에는 특별히 편찮으신 곳은 없으시다니 감사했다. 부임 후 처음 뵈었을 송목사님을 권사님께 소개해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린 후 이 집사님이 손수 빚으신 만두와 과일을 먹으며 그동안 잠자히 계셨던 권사님께서 내 손을 잡으시며 조용히 말씀 하셨다.

“힘들어도 젊어서 열심히 일하세요, 늙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일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권사님은 전에 섬기던 한국교회에서 전도사님들과 함께 20여년 교인들 심방을 열심히 다니셨는데 지금은 맘이 있어도 할 수 없다하시며 안타까워하셨다.

친정어머니를 정성껏 돌보시는 이애자 집사님의 귀한 효의 모범은 믿음의 본을 행하여 보이신 어머니가 주신 가르침에서 비롯되었음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평상시 심방할 때도 부족한 전도사에게 연륜이 많으신 성도님들은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주시곤 했다. 그런데, 오



늘 우리 2교구에서 가장 연로하신 권사님께서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는 도전의 말씀을 주셨다.

지난 2년 동안의 사역을 생각해 보았다.

처음 심방 전도사가 되며 가졌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스스로 나를 질책하며 하루 심방 일지를 쓰면서 반성도 많이 해 보았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계으르지 말자고 다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일 할 수 있는 한정된 연한에 대하여서는 그리 중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일할 수 있을 때’라는 권사님의 진솔한 말씀에 주님의 허락하심과 그 주신 귀한 기회를 허송세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되었다.

찾아가서 병을 위로해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눠드리려 했는데 도리어 나의 사역을 위한 풍성한 은혜와 도전을 받고 돌아온 심방이었다.



윤영철 은퇴장로



임직 안수집사 선서



임직 안수집사 기념촬영



임직 장로 기념촬영

화보

교회 설립 42주년 기념 예배 및 은퇴식·임직식



안수식



장봉석 은퇴장로



말씀선포
총회장 김영수 목사



임직 권사 기념촬영



송동률 정길표 임직장로 선서



영어예배부 윤지현 새 안수집사



기도 허윤준 목사



축사 이규섭목사



권면 이영상 뉴욕노회장



개회찬송 Opening Hymn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임직 명예권사 기념촬영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세요



유영철 장로

사실 10년 전만 해도, 일의 은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런 위암으로 저의 생가과는 달리 67세 꽃다운(?) 나이에 일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암과의 9년 동안의 싸움은 항상 건강에 자신 있던 저를 낫추게 하였습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암병을 경험함으로 아픈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하며, 치료방법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위에 전하게 하셨는데 그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병이 낫는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이뤄지는 간단하지만 확실한 것입니다.

교회설립 42주년과 함께 은퇴장로 대열에 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퀸즈장로교회만 바라보고 봉사하는 눈 깜작할 사이에 42년이 지나간 기분입니다.

처음 우리교회는 자체 건물 없이 타민족 교회에서 예배드렸는데 두 번째 Sanford Lutheran Church로 이사 가던 때, 제가 장영춘 목사님께 우리도 교회건물을 짓고 편안하게 맘껏 예배를 드리자고 건의 했으나 교회형편을 생각하며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교회 건축을 위해 현금계좌도 없는 건축현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정식으로 건축현금 계좌를 만들어 전교인 200명이 채 안 되는 성도님들이 300만 불 교회건축의 현금을 작성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일단 모여진 현금 60만 불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규성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이 되시고 제가 총무를 담당했습니다. 80년대 초 우리성도님들은 갖 이민 온 분들이 대부

분으로 목표한 현금이 쉽지 않아서 10군데 은행에서 loan을 하였는데도 100만 불이 모자랐습니다.

공사는 중단되었고, 우리 모두는 이규성장로님 댁에 모여서 철야기도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한 중국계 은행에서 100만 불을 빌려줘서 공사를 마무리 한 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본당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교회가 건축 30년 후 국제흐름을 따라 다민족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중국은행으로 하여금 loan을 하게 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교회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민족 선교에 대한 vision을 가지신 신실하신 김성국 목사님을 모시고 새 성전을 건축하는데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민족 선교로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 합니다.

2016년 2월28일이 되면, 은퇴장로 대열에 끼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성도님들을 더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교회와 성도님들을 겉으로만 사랑했던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악착같이 살아왔던 자신을 내려놓고, 겸허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만을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소금 역할을 하며 살려고 합니다.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 미지의 세계인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을 뵙게 된다는 더 희망한 즐거움에 한 발 더 다가섭니다. 저의 뒷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저의 어떤 모습들이 남아 있을까요?

끌끼지 감당할 나의 선교



장봉석 장로

장봉석 장로님은 늘 변함없는 경상도 사투리가 매력적인 푸근한 모습이었다. 기자 앞에 앉으시면서 늘 하시듯 부인 권사님을 “우리 은옥씨 ‘도 함께 해야 하는지 물으시어 고운 눈 흘김을 받으셨다.

벌써 은퇴하실 나이가 되셨어요? 그동안 많은 부서에서 부장으로 섬기신 것을 기억하는데...

한국 강남성결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소망교회를 거쳐 40을 조금 넘긴 나이에 도미하게 되어 뉴욕에 도착한 첫 주에 본 교회에 등록했어요. 그동안 차량안내부와 의전부 재정부 선교부 등에 부장으로 섬기면서 2007년 12월 16일 장로 장립을 받고 꿈같이 행복한 교회생활을 보냈는데 벌써 은퇴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희 기억엔 최근까지 섬기신 선교 부장으로 아주 활성화된 활동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선교부에 참여를 하셨나요?

특히 선교부는 이규성장로님이 부장으로 계실 때부터 함께 섬겼어요. 캄보디아 선교의 초창기부터 관여하여 캄보디아 선교지를 짓는데 많은 애착을 갖고 있어요. 2015년 정길표집사가 선교부를 담당하기 이전에는 일 년에 몇 차례 선교지를 방문하였고 회사 일로 출장을 갈 때도 비행일정을 바꿔 들리곤 했습니다.

선교에 특별한 사명을 갖게 되신 동기는?

선교의 사명은 이병익장로님을 도와서 East gospel Mission 일을 하면서 선교 비전을 갖게 되었고 은퇴 후 지금 개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도 앞으로 선교를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은퇴 후에 무엇에 주력하실 계획이신지?

매년 단기선교에 참여하여 선교팀의 필요한 부분을 채우며 앞으로도 남은 생애 나의 사명은 주님이 부탁하신 선교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선교를 위해 백의종군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소원이고 나의 집사람 장은옥 권사와 두 자녀 장진원 집사가정과 장서윤집사가정, 모두는 나의 마지막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후원자들이죠.

장봉석장로님은 그동안 선교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헌신하신 분이셨다. 문서선교와 캄보디아 교회 건축에 앞장서서 일하시며 큰 힘을 보태셨다.

은퇴 장로가 된 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에 기자도 큰 도전을 받았다. 지금처럼 건강하시여 더욱 많은 일을 감당하시길 기도해 드리자.





선교의 부름에 충실한... 정길표 장로

섬김의 자리에 서는... 송동률 장로

{ 간신히 자신의 소개를 하신다면...



1985년 2월에 청년부에 등록했고 회장으로 섬기던 1987년에 정경애권사를 만나 장영춘목사님 주례로 결혼했습니다. 아들로 정현진이 있습니다. 1979년 세례받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 성령님의 역사로 이번에 장로의 직분을 받아 부족하나마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984년 4월에 20대 초반에 부모님과 미국에 온 후 지난 32년간 우리 퀸즈장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아내 송미진 집사와 1남 3녀의 자녀로 아름다운 가정과 형통한 삶을 허락 받았는데 이제 귀한 장로의 직분까지 받게 하시니 부족한 종에게 부으시는 넘치는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 임직 봤으시면서 어떤 강로가 되길 하나님께 서원하셨는지?



교회 투표로 피택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며 큰 부담으로 ‘난 아직 때가 아닌데..’ 하며 감당하기 힘든 직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담임목사님과 장로고시 등의 교육을 준비하면서 기도 중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준비된 장로는 아무도 없다’라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원하기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며 예수님이 따스한 사랑을 나누는 장로가 되며 담임목사님 목회를 든든히 받드는 기둥 같은 장로, 교인들 앞에 겸손하고 낮은 자로 한결같이 섬김의 자리에 서는 장로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부족한 나를 세우신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장로가 되며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장로 그리고 무엇보다 목사님의 목회를 돋는 장로가 되기를 서원했습니다.

{ 믿음 성장에 기강 도움이 되셨던 분은...



우리 교회의 선진에 서서 믿음의 본을 보이신 은퇴 장로님들과 시무 장로님들, 일선 선교지에서 만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에서 주님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경기도 부천의 황 호집사님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저를 처음 교회로 인도해 주신 집사님으로 한 달 반가량 함께 지내며 성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 분을 통해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하늘나라에 가신 아버님 송달이 집사님이 저의 신앙의 롤 모델이십니다. 평범한 신앙인으로 변함없이 행함의 믿음 생활과 가정의 소중함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믿음의 자리에서 말씀, 기도, 예배, 새벽제단을 쌓으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전수되듯이 저의 아들 지훈에게 그 믿음의 본을 고스란히 물려주셨습니다. 만약 훗날 아들도 이와 같은 질문을 받고 주저 없이 아버지인 저를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로가 되길 소원합니다.

{ 신앙의 여정 중 가장 힘들었을 때에 불같았던 성경마쓰이?



아직 신앙의 굴곡에서 고생한 기억은 없고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의 중심에 큰 나무처럼 든든한 벼팀목이셨던 아버님이 갑자기 소천 하셨을 때가 힘들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롬 8:18)의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큰아들 다니엘을 21살에 천국으로 먼저 보냈을 때 가장 힘들었으며 일찍이 아들이 가졌던 케냐에 대한 선교 열정을 부족한 아비가 채우겠다는 심정으로 선교에 더욱 열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때 불잡았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으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의 고난을 이겨야 한다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냈었습니다.

{ 강로님의 경륜에 따라 앞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부분은?



지금은 해외선교위원회의 부름에 충실히 준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장차 이뤄질 우리 교회의 다민족선교의 기본 선교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비하는 역할에 주력하겠습니다. 일선 선교사의 꿈은 변함없이 갖고 있는 것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솔선수범할 것은 교회의 물건을 성물로 귀하게 여겨서 주님께 바쳐진 헌금이 두려움으로 신실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일에 귀감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기본에 충실한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초점을 맞춰 힘이 되는 장로가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장로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교인들의 복지 향상과 우리 자녀들이 모 교회에서 성장하며 다음 세대를 이어갈 주역으로 주인 의식을 갖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Grace and peace to you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Hello, my name is Kiwi (진기웅) Jin and I have the privilege of serving the Lord here at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as the new college pastor of Queens Presbyterian English Ministry. I'd like to thank our current senior pastor, Reverend Seoung Kook Kim, as well as the lead pastor of QPEM, Pastor Peter Kim, for this opportunity to serve and grow as a servant of the Kingdom of God. I'm very excited to see what God has in store for the college ministry. Please pray for us as we continue to envision what God desires for this ministry.

Iwould like to briefly introduce myself. I was actually born in Kingston, Jamaica, an island in the Caribbean's. I wasn't there for long, but I grew up travelling throughout all parts of the world due to my parents' occupations as diplomats. I came to America just in time to start my primary education. This is when my family and I regularly began to attend church through the prayers of my grandmother. She is the first Christian in the history of my family. I believe that it is through her prayers that my entire family met Jesus Christ and I firmly believe it is through her prayers that I am where I am today.

Igrew up in Bergen County, New Jersey. I went to ele-

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in Fort Lee, NJ. Growing up in church, I had become numb to the Word of God. Knowing all the right answers and Bible stories, church became a religious activity for me. However, in my junior year of high school, a bible study teacher continued time and time again to exemplify the love of Christ in his life. His embodiment of Christ's love is what allowed for the gospel to sink from my head into my heart. After initially meeting Christ in high school, it wasn't until college that I had received my call and deep conviction to vocational ministry as a pastor.

Idecided to attend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in New Brunswick. Here, I began in the business school as a finance major. I was motivated and driven by the stereotypical American Dream of making a lot money in the business world to retire by the age of 40 and play golf and serve the church for the rest of my life. However, as I began to intern and do co-ops in the corporate world in New York City, I began to internally struggle and question whether I, personally, could live a life in the corporate world while still living a life as a disciple of Christ.

After much prayer and discernment, I experienced the Lord's call into ministry at the conclusion of a forty-day early morning prayer movement during my sophomore year in college. After completing my degree in

finance, I also studied philosophy of religion at Rutgers to better prepare myself for seminary education. Approaching seminary, I was serving at my home church in northern New Jersey as a worship pastor as well as a bible study teacher in multiple ministries. I had the deep conviction to continue there during the beginning of my seminary years so after much discernment with my pastor at the time, I decided upo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as it was the closest seminary to the church. God had also blessed me tremendously with financial grants and aid through the school.

Throughout my time in seminary, God has allowed me to continue serving as a worship pastor at my home church. After a year there, I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serve as a youth group pastor and Promise Ministries International in New Jersey. I served at Promise Church for two and a half years and finally received the privilege to come and serve here at KAPCQ.

Igenuinely believe that I am here only by the grace of God. 2 Corinthians 12:9 says: "But he said to me,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Therefore I will boast all the more gladly of my weaknesses, so that the power of Christ may rest upon me." It is by the Lord's grace that I am able to serve as a pastor for his kingdom and I am truly joyful and eager to see what the Lord has in store for

ministry and myself here at KAPCQ.

Having been here for exactly a month now, God has already been moving so faithfully in the college ministry. We thank you for praying for us throughout our Winter College Retreat '16. We had a record-breaking number of students attend this retreat (59 members!) and God moved powerfully through the different session within the worship and the Word.

Since retreat, we've reformatted Friday evening worship from a Bible study to an actual worship service each week. Pastor Peter, the deacons, and I are still praying for more college group leaders as well as vision in order to best serve the college students each week. I humbly ask that you would be in prayer for the ministry, the students, and myself as we continue to move forward in ministry.

Thank you so much for welcoming me here into KAPCQ. It truly feels like home and family already, even though I've only been here for a month. I look forward to serving at this church alongside all the other pastors to really build a church that is glorying and pleasing to the Lord.

In Him,
Kiwi Jin JDS



초등부 수련회



Our Hearts Desire

Jessica Lavere

The desire to belong, the desire to be accepted, and above all, the desire to be loved- these are all things that come to mind when I think of the children as a 초등부 Teacher. This past year, I have had the privilege of teaching the 3rd grade children of 퀸즈장로교회 in Bible study. While at times it has been very difficult teaching a large group of young children, I've found that there is a greater purpose in what I do and what we do as teachers, parents, and friends of these children.

In Mid-February 2016, we held a Winter Retreat for the children at the America's Kes-wick Retreat Center. As an annual retreat held every winter, it's been a blessed opportunity for students and teachers alike,



to get away from our hectic schedules to learn, reflect on our relationship with our Lord, and have fellowship together. On many occasions, we fall into the trap of seeing our students simply as innocent children, coming to church and doing what they're told without question. Praying that someday they'll be a great Christian or someday they'll make an impact for His Kingdom. However, after witnessing such an instant growth in the kids throughout this Winter Retreat, God has provided me with the realization that it won't just be "someday" that we wait for, but that they are already glorifying the Lord in so many ways, each and every day. I was truly blessed by hearing them ask thoughtful questions, witnessing them

encouraging their friends, or simply by seeing their smiles and laughter. As I reflect on this past Winter Retreat and on my time teaching the children, God continues to reveal his reason for placing us in certain situations. Sometimes we have to look back on our lives to see Christ's work in it. At times, the work we do feels mundane and can even be discouraging to a point where we feel inadequate in our role as teachers or servants of the Lord. However, we pray to remain grounded in His word that tells us it's not through our own abilities that are being used, but by having Christ in our hearts that makes us able.

As a ministry, I still believe they are infants on this walk with our Heavenly Father. In asking my class what their favorite part of the retreat was, the majority of the responses was "games", or "activities", or "swimming". However, even amidst the times of seemingly meaning-less fun and games, I believe

God is smiling over us. He looks upon us with loving smiles, knowing that all of us are putting our best foot forward in growing in Him and with each other. I would like to think that he is pleased with his precious sons and daughters, even if we may have trouble remembering all the sermons we've ever heard. We'll always remember the people we worshipped with for the bonds we create during those times are founded in Jesus, and therefore, everlasting.

As humans our greatest desire is to be accepted and to be loved, my hope in being a teacher, especially in 초등부, is that I'll be able to help the children trust in The One who accepts and loves us more than we can ever fathom. Just as much as I work to teach them in Bible study, the kids teach me so much more by just being themselves. My prayer is that we'll find joy in having fun and learning together, not just as 초등부, but as one church.





Hope For Kids

Jenny Whang(QPEM) 황지현 집사

Calling all Christian boys and girls!! Do you know what Jesus's last words on earth were to His disciples before He ascended to Heaven? We find them in the last chapter of Matthew. In Matthew 28:18-20, it says, "18 Then Jesus came to them and said,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19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20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What powerful and inspiring parting words for all of His children! We have His power working in us! Jesus made it easy for us. He didn't leave a list of directives. He simply said to go and make disciples. Isn't it comforting to know that He, who has all authority and who is always with us, will not leave us like orphans but equip us to carry out this Great Commission?

Jesus wants us to get going! Are we sitting idly and just taking in the Good News for ourselves? Then we are to get up and start moving. He wants us to go out, go to others, go meet people, and share His Gospel and make more disciples. You might ask, "Well, how can I? I'm not a pastor or evangelist." Jesus knows that and He knew it back then and neither were the twelve disciples He was addressing,

right? None of them were scholars or theologians. They were simply His disciples who spent time with Him and trusted and obeyed. And so can we! In fact, as kids we have greater opportunities to share the Gospel because we're surrounded daily by many children and friends.

Fortunately for us, KAPCQ partnered together with Evangelism Explosion International's Hope for Kids (HFK) which is a children's ministry that trains kids to become witnesses for Jesus Christ.

We were blessed to host a two-day HFK workshop on Feb 18 & 19 and train 21 KAPCQ upper elementary students. Under the leadership of Pastors Esther Kang and Nate Cha, Cha & Na KSNs, Teacher Candy, this first HFK workshop was a huge success in laying the foundations of clarifying the Gospel for kids, equipping them to share the Gospel and eventually bring others to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It is our prayer and endeavor to kick-off HFK on a grander scale this summer for more children to sow seeds of the Gospel and help save others by sharing this living hope. Come join Jesus and us this summer 2016 for Hope for Kids! See you there!



경기에서 51:1로 패배한 자는 너무 비참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제 51기 전도폭발 훈련 수료생이고 제 1기 어린이 전도폭발 사역자입니다. 51:1의 숫자는 저의 사역에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퀸즈장로교회를 20년 가까이 다녔지만 작년 가을 51회 때야 전도폭발 훈련생이 되었습니다. 훈련 중 전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과 사역자로서 살아온 세월 가운데 얼마나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의 삶을 살았는지 생각하면서 저의 부끄러운 모습에 많은 시간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마침 훈련 중 어린이전도폭발 훈련이 있다는 소식에 작년 하랑예찬 제자훈련이후로 아이들에게 어떤 훈련이 필요할지 기도하는 중이였는데 특별활동위원회에 속한 아이들에게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삶의 예배자로 또 전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수록 어린이 전도폭발을 훈련시켜야겠다는 마음으로 훈련에 참석 했습니다.

51기 전도폭발을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에 대한 다른 시각과 열정은 더 뜨거워 졌고 2016년 교회표어가 “전도를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라 더 큰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학교도 여러 가지 주일 사역이 많아서 여름이 되어야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저의 마음은 날씨가 따뜻해지지 전해 훈련받아 노방전도에 함께 동참하기 원하는 마음에 12주에 걸쳐서 받아야 할 교육을 이틀에 걸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4학년 5학년 아이들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2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중 엄마 배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많은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훈련 중 9명이 결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모태신앙이라고 그냥 지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다시금 확인 하였습니다.

어린이 전도폭발(Hope For Kids)의 목적은 복음이 무엇인지 배우고, 구원의 확신을 같게 하며, 자기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함에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폭발의 훈련과정은 어린이들의 발달특징을 고려하여 어린이들에게 복음의 중심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어린이 전도폭발 복음제시의 성경구절들을 배우고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다는 개념을 강하게 심어줍니다.

어린이 전도폭발은 다양한 스Kit, 드라마, 예화를 사용하며 “학습과 기억 피라미드”에 근거하여 어린이들에게 시범, 토론, 연습, 실제로 가르치기 등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훈련되었습니다.

전도폭발을 졸업했기에 가능했던 Candy Zheng(중국어회 중) 황지현집사(QPEM)가 교사로 섬겨주시고 권사님들과 중등부 학생이 함께 헌신의 자리에 기쁨으로 훈련을 마쳤습니다. 영어회중, 중국어회중, 한국어회중이 함께 어린이 전도폭발을 섬겼듯이 아이들도 영어, 한어, 중어, 러시아어를 하는 아이들이 훈련에 참여 했습니다.

차세대 교육과 다민족의 복음을 위해 늘 기도하며 많은 정성을 쏟으시는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의 사랑의 마음같이 차세대 아이들이 교회학교의 말씀교육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의 Original Design을 발굴하고 육성하며 어린이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 후러싱 아니 온 세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 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 갈 것입니다.

52:1 아직도 성인 전도폭발의 회수를 따라 잡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달려 갈 것입니다.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학교가 되기 위해….

Hope For Kids

韩中长老教会中文堂 郑丽芳

早在去年年底的时候，我就透过教会幼儿部的传道人那里听到了 Hope for Kids 这个针对训练小孩子的布道培训法。当时就很好奇，也很想了解它。感谢主！就在本月的18和19日，我有幸作为这为期两天的培训活动的老师之一。虽然我有参加过成人的福音布道培训，但是我并没有完整的去参加针对小孩子的福音布道培训。藉着教学碟片和不停地翻看教材，我深深地喜欢上了这个福音布道培训。透过这两天的培训，让我印象深刻的是，我发现HFK福音布道法非常的活泼，因为每一个福音布道环节都有肢体动作在其中。这让小朋友不仅觉得有意思，同时也让他们更好、更完整的记住福音布道内容。与此同时，HFK中每一课都有让小朋友们感兴趣的，同时也是与福音布道有关的手工劳作来提升小朋友们对HFK的兴趣，同时也让他们对福音布道内容又印象深刻一次。

虽然我们本次的培训活动只有短短的两天时间，但是我们每一天的培训内容安排都十分密集。更让我觉得骄傲和欣慰的是，来参加受训的21名小朋友们都非常的认真，尤其是在第二天晚上的现场演示中，小朋友们逐一将福音布道内容展现在了他们父母面前，让人大为惊叹！我想他们的这一举动也会或多或少的影响他们的父母长辈，让他们在将来也有机会去参加成年人的福音布道。希望日后能看到教会当中更多的小朋友们能参与到Hope for Kids中来，能带领他们身边的同龄朋友们认识主！将荣耀都归给我们天上的父！阿们！

Hailey Sohn(초등부)

I like Hope For Kids because it makes me want to share the gospel to others. I also like it because they make creative crafts and fun games. I love the teachers they courage us to share the gospels, another reason is you can make a new friends. When I go to school I will try my hardest to share the gospel with others. I also want to go to missionary one day to spread the gospel.

Elijah Kim(초등부)

At Hope for Kids I learned about the gospel path. It was Heaven, Sin, God, Christ, Faith, Response, I also learned we need to believed in Christ Jesus alone to go to heaven. Also Hope For Kids enabled me to have the courage to tell others about Jesus.



영혼구원과 전도에 대한 열정 회복과 재무장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라는 새해 우리 교회의 표어와 다민족을 향한 선교 비전에 맞추어 제 1회 전도 폭발 재훈련이 2월23일(화)에 5명의 재훈련생과 훈련자, 기도후원자들이 모인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개회 예배에서 오인수 목사님의 말씀(요한복음4장)으로 한 영혼(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러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여인이 전도자로 변화되는 역사를 보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을 가졌으며, 최원일 집사님의 사역에 대한 보고와 설명이 있은 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그 다음 순서(시험, 수업)가 진행되었습니다.

재훈련은 4주간이며 이미 훈련을 받았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수업과 시험, 현장 실습을 13주 훈련과 똑같이 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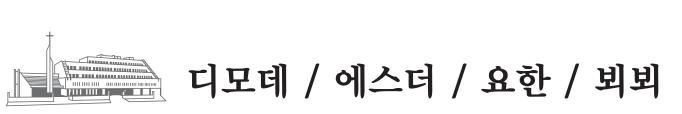
재훈련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다시 한 번 영혼구원과 전도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재무장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3월15일부터 시작되는 제52기 전도 폭발 훈련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예수 전도의 준비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기대해봅니다.

훈련에 관한 문의: 오인수 목사, 최원일 집사



2016년 선교회 회장 인사말



민준성 집사 } 젊은 패기로 열심을 다해
교회에 도움이 되는 선교회가 되겠습니다.

박승희 집사 }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이 더 드러나실 수 있길 기도합니다.

조인범 집사 } 부족한 저에게 복을 주시는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를 이루어 가기 위해 예배와 기도로 무장하고, 요한 선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여러가지 행
사에 도움이 되고 주신 말씀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선교회가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주와 함께…

이승재 집사 }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는 2016년이 되겠습니다.



최원일 집사 } “응답하라 1988! 바울형제들이여”
‘옥중당선’이라는 말은 들어 보았어도 ‘출장 중 당선’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가문의 영
광으로 알고 잘해 보려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애듯함으로 추억하던 우리 ‘바울’이라는 세대 형제들, 이제 ‘옹팔’도 끝났으니
예수 안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더 살갑게 함께 웃고 울 수 있도록, 40대 사내들의 믿
음공동체로서 보금자리를 다져 갈 때입니다. 선교와 전도, 봉사… 우리 바울 선교회 형제들 가만 팔
짱끼고 있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김영숙 집사 }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큰 은혜에 보답코저 ‘자진’ 하여 회장직을 맡게 되었
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받지만 말고,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코저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섬김으로 받은 1년의 사역을 기도로 감당하겠습니다.

정영철 집사 } 귀한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수리(라틴어-아굴라) 날개쳐 올라가듯!!” 선교의 사명을 품
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선교를 실천하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
탁드립니다.

조나영 권사 } 부르신 곳에서 순종함으로 섬기는 선교회.
첫째, 전도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선교회
둘째, 모이기에 힘쓰는 선교회
셋째, 열정적인 기도에 힘쓰는 선교회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심어 실천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분별하여
섬기겠습니다.



베드로/ 마르다/ 갈렙/ 다비다

차성남 집사 }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가슴에 품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십자가를 붙잡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 갈 것
을 서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고 충성스럽게 허락하신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겠습니다.

박경우 권사 } 2016년을 모이기에 힘쓰는 해로 정했습니다. 바위같이 튼튼하고 사랑이 넘치는 퀸장에서 신앙 생
활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선교회 봉사와 선교활동에 힘을 다하고, 올 한해 믿음 좋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많이 모여, 많이 선한 일에 힘쓰자.”

심인보 집사 } 처음하는 회장 직분이라 잘 모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미숙 권사 } 임마누엘을 선포하고 나가는 2016년도 다비다 선교회를 부족하지만 믿는 이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나는
선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루디아/ 모세/ 한나

이왕수 집사 } 여호수아를 본 받아 강하고 담대하게 맡은 사명을 완수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도로서 미래을
열어가는 교회의 선봉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우 권사 } 할렐루야. 2016년도 새로운 일꾼으로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방침대로 충성 봉사할 것
을 약속합니다.

최상호 집사 } 교회의 시급한 과제는 소금이 맛을 잃어 밟히고 있는 상황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올해 교회 표어
인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방전도 중요하지만 모세 선교회 회원들
은 겸손하고 경건한 삶의 본을 보이며 전도 목표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정혜자 권사 }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부족하지만 먼저는 성령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기도에 힘쓸 것이며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겠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론/ 사라/ 아브라함/ 안나

김인환 집사 }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와 노력을 끊이지 않겠습니다. 회장단이 선교회 활성
화를 위해서 제안한 국내외의 전도와 선교 그리고 안에서의 연합과 친교, 구제와 봉사활동에 적
극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누가복음 9:23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
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순종과 충성을 다짐하는
아론 선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봉순 권사 } 우리 나이가 되면 삶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추구해야 할 것에 대한 세
상의 허상들이 다 제거된다. 오직 진정하신 영원한 친구 예수님만 높이는 선교회가 되도록 혼신할
것이다.

김영오 장로 } 표어인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의 교회 방침에 따라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선교회, 사랑
으로 만나서 친교를 나누는 선교회가 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4:13)라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김효자 권사 } 선교회의 제일 큰 어른의 자리에 어느 사이 올라왔다. 어른의 위치에 걸 맞는 기도를 전담하는 선교
회가 되겠다. 이제 우리가 오직 추구할 일은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선교회가 될 것이다.



요한 · 뵈뵈의 밤

이승재 집사



2016년 2월13일 오후 6시30분

영하15도의 추운 날씨를 뚫고 뵈뵈와 요한 선교회의 회원들이 둘 넷씩 퀸즈장로교회의 친교실로 모였습니다.

마침 2월14일이 발렌타인데이라 그것에 맞추어 결혼전 프로포즈를 받던 것을 다시한번 재현 하도록 꾸며진 포토존과 임원들의 수고로 준비된 데코레이션, 맛있는 음식이 한가득한 축제의 분위기 속에 가족사진 촬영과 식사를 마친 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젊은 날 하나님과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2016년 요한과 뵈뵈의 사업보고와 임원진 소개가 있었습니다.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라는 교회의 표어에 맞추어 함께 전도하며 함께 나가자는 다짐을 모두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부 레크레이션으로 회원들 간에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어색했던 회원들끼리도 활짝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레크레이션 중간 중간 준비한 상품들을 나눠가지는 행복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윤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미용사(미안해 용서해줘 사랑해)의 고백으로 부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는 시간과 교회와 선교회를 위한 기도로 한마음으로 선교회를 교회를 섬기기를 다짐하며 모든 행사를 마쳤습니다.

퀸즈장로교회 2016년 행사일정



Mar

- 3월 2일(수) 지도원 성경공부
- 6일(주) 선교회 월례회
- 11일(금) 구역예배
- 13일(주) 새가족 출업예배(112기)/일광절 약 시작
- 15일(화) 성인대학 개강/제52기 전도폭발 개강
- 19일(토) 학습, 유아, 입교, 세례 문답식
러시아권 전도 집회
- 20일(주) 종려 주일/ 성례예배
- 25일(금)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밤
- 27일(주) 부활주일/ 촛불예배/ 부활절 찬양예배
- 28(월)-30일(수) 여선교회 수련회
- 30일(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Apr

- 4월 3일(주) 월례회 or 성경암송대회
- 6일(수) 지도원 성경공부
- 8일(금) 구역예배
- 10일(주) 선교회 혼신예배/교사대학 시작
- 17일(주) 선교회 혼신예배
- 24일(주) 선교회 혼신예배
- 25(월)-27일(수) 어머니 학교
- 27일(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May

- 5월 1일(주) 어린이주일/ 어린이현신예배/월례회
- 4일(수) 지도원 성경공부
- 8일(주) 어버이주일
- 13일(금) 구역예배
- 15일(주) 제자훈련, 영성훈련 수료예배
- 16일(월) 효도관광
- 22일(주) 선교회 혼신예배
- 25일(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 예배
- 30일(월) Memorial Day- 전교인 한마음 축제
- 31일(주) 선교회 혼신예배

Jun

- 6월 1일(수) 지도원 성경공부
- 4일(토) 선교 바자회
- 5일(주) 선교회 혼신예배
- 10일(금) 구역예배
- 12일(주) 선교회 혼신예배
- 19일(주) 교회학교 출업식
- 22일(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 26일(주) 선교회 혼신예배 or Gloria Singers 음악회

Jul

- 7월 3일(주) 단기선교사 파송예배/월례회
- 4(월)-6(수) 전교인 여름 수련회
- 6일(수) 지도원 성경공부
- 8일(금) 구역예배
- 10일(주) 선교회 혼신예배
- 17일(주) 선교회 혼신예배
- 24일(주) 선교회 혼신예배
- 27일(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 31일(주) 선교회 혼신예배

Aug

- 8월 3일(수) 지도원 성경공부
- 6일(토) 부모와 함께하는 성경 체험 놀이
- 7일(주) 월례회
- 14일(주) 함께하는 찬양축제
- 21일(주) 선교회 혼신예배
- 28일(주) 선교회 혼신예배
- 31일(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사역훈련 시작

Sep

- 9월 1일(목) 영성훈련 시작
- 3일(토) 제자훈련
- 4일(주) 월례회
- 4(주)-5(월) 남선교회 연합 수련회
- 7일(수) 지도원 성경공부
- 8일(목) 열린유아원 개강
- 9일(금) 구역예배
- 11일(주) 단기선교 보고예배
- 13일(화) 퀸즈성인대학 개강/ 53기 전도폭발 개강
- 18일(주) 선교회 혼신예배/ 어와나 개강
- 25일(주) 새교우 출업 예배 113기
- 28일(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Oct

- 10월 1일(토) 건축바자
- 2일(주) 월례회/ 학습, 유아, 입교, 세례, 교육시작
- 5일(수) 지도원 성경공부
- 7일(금) 구역예배
- 16일(주) 장년성경공부
- 17(월)-22(토) 추계 특별새벽 기도 부흥회
- 23일(주) 장년성경공부
- 26일(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 30일(주) 장년성경공부

Nov

- 11월 2일(수) 지도원 성경공부
- 6일(주) 월례회
- 11일(금) 구역예배
- 12일(토) 학습, 유아, 입교, 세례 문답식
- 13일(주) 성례예배
- 16일(수) 신학생 찬양의 밤
- 20일(주) 추수감사주일
- 24일(목) 추수감사절 감사의 밤
- 27일(주) 장년성경공부/ 연말당회(11월27일-30일)
- 30일(수) 제직회/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Dec

- 12월 4일(주) 월례회 / 공동의회
- 7일(수) 지도원 성경공부
- 9일(금) 구역예배
- 11일(주) 성탄절 찬양의 밤: “엘리야”
- 18일(주) 선교회 정기총회
- 25일(주) 성탄주일/성탄축하예배
- 31일(토) 송구영신예배



김동은·한선일
4-F5-5 / 베드로·마르다
김하영(청년2)



차 금 복
2-F12-2 / 브브



손요한
4-Y-1 / 청년1



양 흥 배
4-Y-2 / 청년2



장 윤 우
4-Y-1 / 청년1



이 기 숙
4-Y-1 / 청년1



공 연 흥
2-F16-5 / 에스더



김 지 혁
1-WH1-2 / 디모데



이 금 연
1-F4-1 / 안나



랭 연 주
4-WS-4 / 에스더



박 지 혜
4-Y-2 / 청년2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송 인 호
2-F16-1 / 요한



김 화 자
2-F12-1 / 다비다



최 상 근
4-Y-2 / 청년2



이 준
1-F4-1 / 청년1



한 예 속
2-F11-5 / 다비다



박 선 미
2-F13-1 / 에스더



정 문 화
2-F13-5 / 에스더



김 다 예
3-Y-1 / 청년1



김 민 아
3-Y-1 / 청년1
전우승(유아)
김기쁨(영아)

2월에 등록하신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 퀸즈장로교회 새가족부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지하 친교실에서 교우들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식사와 함께,
새가족 여러분의 교회 정착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양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